

### 2015 법원직 필기 국어 정답&해설

1. 정답: ②

오답풀이: ① 두 번째 단락의 “고유 명사로써 한정지을 수 없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때문으로 보인다.”에서 알 수 있다.  
③ 네 번째 단락에서 알 수 있다.  
④ 마지막 문장 “「논어」가 지금까지 스무 개의 편장으로 이뤄진 표준형으로 고정된 것은 공자가 죽고 나서 한참 뒤였다.”에서 알 수 있다.

2. 정답: ②

오답풀이: ① 세 번째 단락에서 노자의 말을 들어 ‘논어’라는 이름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③·④ 첫 번째 단락에서 <맹자>, <장자>, <순자> 등의 예시를 들고 <논어>와 비교하여 <논어>가 갖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3. 정답: ④

해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끝소리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 대표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며, 비음화는 파열음이나 유음이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앞만’은 ㉠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암만]이 되고 이는 다시 ㉡ 비음화에 따라 최종적으로 [암만]으로 발음되므로 ④가 답이다.  
오답풀이: ①, ②는 ㅂ, ㄷ이 뒤의 비음 ㄴ을 만나 각각 ㅁ, ㄴ으로 발음되므로 ㉡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③은 ㉠에 따라 [남다]가 되며, 안울림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올 때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된소리되기 현상에 따라 [남따]로 발음된다. 된소리되기 현상은 보기에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②

해설: ‘지’가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떠난 지가 오래다.’  
오답풀이: ① 성과 이름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쓰므로 ‘김양수 씨’는 맞는 표현이다.  
③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며 ‘것’은 의존 명사로 앞말에 띄어 쓴다.  
④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는 의존 명사이며, ‘밖에’는 체언 뒤에서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5. 정답: ③

해설: 문맥상 ㉠, ㉡, ㉢은 칠정(七情)이 극에 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울음을 의미하지만 ㉣은 억지로 내는 소리로 성격이 다르다.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는 기행문 <열하일기>에 실려 있는 수필로, 요동 벌판에 이르러 드넓은 세계를 만나는 기쁨을 참신한 발상과 독창적인 비유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6.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슬픈 감정(哀)이 아니라도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는 개인적 깨달음을 대화를 통해 전개한 글로, 회고적 정서나 다른 사람을 깨우치려는 교훈적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조선 정조 때에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와 쓴 연행일기(燕行日記)인 <열하일기>에 수록된 글로, 견문과 여정이 나타나는 기행 수필이다.  
② 사람의 7가지 감정인 칠정(七情) 즉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즐거움(樂), 사랑(愛), 미움(惡), 욕심(欲)을 예시로 들고 있다.  
④ ““슬픈 감정”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겐니다.~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웃음과 뭐 다르리요?”에서 나타나듯, 글쓰이는 ‘울음’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7. 정답: ④

해설: 이 글에서 말하는 ‘울음’은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터지는 참다운 소리로 ‘억지로’내는 소리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②·③ 마지막 두 단락을 통해 알 수 있다. 박지원은 백성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북학파의 중

심인물이다. 즉 갓난아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드넓은 요동 벌판을 만났을 때 울어보고 싶다는 말은, 좁은 땅에서 벗어나 광활한 문명 혹은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된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정답: ③

해설: 종립국 행을 끝까지 주장하는 명준에게 설득자는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좀 더 강하게 내세우고 있을 뿐 나쁜 감정을 걸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최인훈의 <광장>은 1960년 8월에 발표되어 4·19 혁명 이후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문학적으로 제기했을 뿐더러, 남북한의 분단 이데올로기를 진지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작품이다. 이 소설은 전체가 타고르 호 위에서의 회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실의 시간과 공간은 타고르 호 위에서의 이틀인데, 이 시간 동안 회상하는 것은 광복 직후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민족사의 대혼란기이다. 즉 이 작품은 사변적이고 도덕적인 주인공을 내세워 한국 사회의 혼란기를 짚어 봄과 동시에, 이를 통해 분단의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에서 알 수 있다.  
② 설득자는 “당신은 고등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예의를 지키며 침착하게 말하고 있다.  
④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에서 알 수 있다.

9. 정답: ①

해설: (나)에서 명준은 자신이 추구했던 이상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남북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즉 명준은 ‘한 잔의 영생수’로 표현되는 이상적 이데올로기가 실현되는 공간을 찾아 남과 북을 헤매었지만 남과 북의 권력자들, 즉 ‘마술사’들은 ‘마술’로 자신을 꿰 뿐이며, 이상적 이데올로기는 ‘지식 노동자의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진실을 숨기기 위해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둔다며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를 모두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명준이 자유를 추구했으며 자아반성을 주로 하고 있다는 ①의 설명은 잘못되었다.  
오답풀이: ② 명준이 겪은 사건들을 주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소설은 타고르 호 위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을 취한다.

10. 정답: ④

해설: ㉠은 남북의 권력자들(‘그들’)이, 이상을 좇아 ‘바다’를 헤매었지만 그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 ‘바다의 난파자들’을 진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격리시킴을 의미한다.

11.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초경(初更: 저녁 7~9시 사이)을 지난 시간부터 아침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보인다.  
박인로의 <누항사>는 한음 이덕형이 그에게 살림의 어려움을 묻자 이에 화답하여 지은 가사이다. ‘누항(陋巷)’이란 누추한 거리를 뜻하는 말로, 노래 박인로 자신이 사는 곳을 가리킨다. 작가는 가난한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빈이무원의 자세로 충절, 우애, 신의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생생한 생활 경험과 일상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잠이 와서 누어서라.(잠이 와서 누워 있겠는가?)” 등에 설의법이,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등에 대구법이 쓰였다.  
③ ‘허위허위(허우적 허우적), 설피설피(맥없이)’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급한 마음으로 소를 빌리러 갔지만 소득없이 허탈하게 돌아온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④ ‘먼덕(모자를 의미함), 소뉘(‘쟁기’를 가리키는 사투리)’ 등의 농촌 일상 어휘와, ‘종조 주창(終朝 惆悵)하며(아침 내내 슬퍼하며), 빈이무원(貧而無怨: 가난하나 원망하지 않음)’ 등의 한자어가 함께 쓰였다.

12. 정답: ①

해설: (가)의 “쇼 훈 적 듀마 호고 엄섬이 흐는 말삼(쇼 한 번 주마 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을 듣고)”에서 이웃이 화자에게 소를 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수평과 술을 들고 이웃집에 찾아간 사람은 ‘거넨 집 저 사람(건넌집에 사는 사람)’으로 화자는 아니다.  
③ (나)의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느다.(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게 들리는구나.)”에서 틀린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봄갈이도 거의 다 지났다. 팽개쳐 던져 버리자.)”에서 틀린 진술임을 알 수 있다.

13. 정답: ①

해설: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썬이로다.(풍채 적은 내 모습에 개가 짓을 썬이로다.)”에 나타나듯 ‘기’는 화자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존재이다.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느다.(무정한 오디새는 나의 한을 돕는구나.)”에서 ‘대승’은 봄에 밭 갈기를 재촉하는 ‘오디새’로, 화자의 비참한 마음을 더욱 부추기는 존재이다.

14. 정답: ①

해설: ㉠은 소를 가진 이웃집 사람이 하는 말이며, 나머지는 시적 화자가 하는 말이다.

15. 정답: ③

해설: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흥건 마는 다행(生涯) 이러호되 설은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족(足) 히 너기로라.”에 나타나듯 화자는 가난한 생활이지만 만족하며 살겠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한호의 시조 역시 가난한 산촌 생활에서 안빈낙도하며 살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황희의 시조로 가을이 깊어가는 농촌에서 느끼는 흥취를 읊고 있다.  
② 서경덕의 시조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읊고 있다.  
④ 조식의 시조로 지리산 양단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예찬하고 있다.

16. 정답: ③

해설: (가)는 눈 내리는 겨울 저녁 풍경을 묘사하여 암울한 현실에서 방황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며, (나)는 가을 풍경을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애수와 고독을 표현하고 있다.  
(가) 황동규의 <조그마한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방황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이 제작된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자유와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1970년대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읊은 시로 해석되기도 한다.  
(나) 김광균의 <추일서정>은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시적 삶의 고독과 비애감을 주관적인 감각 체험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현대 문명 속의 인간이 지닌 균중 속에서의 고독과 비애, 이방인의 우수를 노래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는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으로 황량한 가을을 거부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7. 정답: ②

오답풀이: 해설: ㉠은 ‘어제’라는 시간 즉 추상적인 개념을 사물화하여 ‘동여’매었다고 표현해 구체화하고 있다. ② 황진이 시조에서도 ‘밤’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버혀 내’었다고 표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18. 정답: ④

해설: ㉠ ‘몇 송이 눈’은 상실감으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떠다니며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돌팔매 하나’ 역시 황량함을 이기지 못해 화자가 무심히 던지는 것으로 무기력하게 방황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 ‘넥타이’는 구불구불한 길을 비유한 말이다.

19. 정답: ①

해설: 고려가요는 대체로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구성되며, 후렴구와 조흥구가 발달되었다는 형식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정과정>, <사모곡>과 같이 하나의 연으로 구성된 작품도 있으며, 음수율도 다양한 것으로 보아 고정된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고려가요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에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약보》 등에 기록되어 전한다.

20. 정답: ④

해설: “니를 혼 뒤 녀가져 願(원)을 비습노이다.(임과 함께 살고자 소원을 비읍니다.)”에 나타나듯 (라)는 임을 영원히 따르고 싶은 염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④가 잘못된 진술이다.  
<동동>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월령체 노래로 전 13장으로 이루어진 고려 속요이다. 이 노래는 계절에 따라 깊어지는 고독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를 1년 12개월에 맞추어 절절하게 노래하고 있다. 특히 임과 자신을 사물에 비유하여 연

모의 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다. 제목인 ‘동동’은 후렴구의 ‘아으 동동다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동동’은 북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로 추정된다.

21. 정답: ③

해설: ㉠ ‘몸’은 화자 자신을 비유한 말로 <동동>의 화자는 사랑하는 임에게 버림받은 자로 표현되고 있다. (다)의 ‘별해 부른 빛’은 벼랑에 버린 빛으로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대상이므로 ③이 정답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등불’은 님의 고매한 인품을 비유한 말이다.  
② (나)의 ‘아츨 藥(약)’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표현한 말이다.  
④ (라)의 百種(백종: 여러 가지 곡식, 제물)은 임과 함께 하고 싶은 기원을 드리기 위해 올리는 정성을 의미한다.

22. 정답: ③

해설: ③은 꿈과 현실의 이중 구조를 취하는 몽자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김만중의 <구운몽>, 남영로의 <옥루몽> 등이 이에 속한다.  
오답풀이: ①·②·④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에서 연창되던 사설이 18세기 초에 문자로 정착되면서 탄생하게 된다. 판소리계 소설은 전지적 시점을 취하며,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의 양면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있으나 운문적 요소가 더 강하게 남아 있으며, 지배층의 횡포와 부패를 폭로하는 풍자와 해학을 바탕으로 작품을 전개한 것이 특징적이다. 판소리계 소설은 ‘설화>판소리->판소리계 소설’의 정착 과정을 거치며 후에 신소설로 전승된다.

23.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어사또가 본관의 연회 자리에 등장하여 벌어지는 사건들을 대화와 행동, 배경묘사를 위주로 한 극적 전개로 자세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②는 잘못된 진술이다.  
<춘향전>은 판소리가 소설로 정착된 소설로, 열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신원 설화 등의 근원 설화가 있으며 후에 신소설 <옥중화>로 전승된다. 순종적인 열녀의 모습을 칭송한 것이 작품의 표면적인 주제라면, 신분 상승의 의지,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은 이면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어찌 아니 명관인가.” 등에서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난다.  
③ 어사또는 한시를 통해 여흥에 취해 가난한 백성은 돌보지 않는 위정자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④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의 갈비를 직신, / “갈비 한 대 먹고지고,”에서 사람의 신체 부위와 고기를 함께 써 해학적으로 표현한 언어 유희가 나타난다.

24. 정답: ①

해설: 어사또의 거동을 보고 그를 말석에 앉혀 대접하는 모습과, 어사또의 시를 듣고 단속을 시키는 모습에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행동함을 알 수 있다. ‘용의주도(用意周到)하다’는 ‘꼼꼼히 마음을 써서 일에 빈틈이 없다.’는 말이다.  
오답풀이: ② 무골호인(無骨好人): 꾀대가 없이 두루뭉술하고 순하여 남의 비위를 다 맞추는 사람.  
③ 표리부동(表裏不同):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25. 정답: ②

해설: ‘어쭈다’는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린다는 의미이다. 존경의 어휘를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존경의 어휘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 →‘~저에게 물어 보세요.’ (이거 맞는지 좀?)  
오답풀이: ① ‘모시다’라는 어휘를 통해 ‘어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적절하게 쓰였다.  
③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기도 하므로 ‘말씀’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④ ‘밝으시다’에서는 문장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 사용되었다.